

제주의 국제화 향후 과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변 정 일

I. 들어가면서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통신과 교통수단을 포함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빠른 속도로 지역 간, 그리고 국가 간 거리를 좁혀가고 있다.

좁아지는 세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지구촌(地球村)이다. 1960년대 캐나다의 미래 학자 마셜 맥루한(Marshall McLuhan)이 처음 언급했던 ‘지구촌’이란 단어는 이제 미래가 아니라 모든 것이 1일 생활권에서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세계를 의미하는 단어가 됐다.

국제화는 곧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경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 지자체간에도 국제화 경쟁은 치열하다.

저마다 국제화를 외치며 국제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제주는 동북아 중심도시로의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목표로 10년 전 국제자유도시로 출범하여 특별자치도가 된지 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이후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인 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주도적 역할과 민간의 협력으로 물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궁극적 지향점은 적극적인 투자유치개방정책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직접투자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해 인프라 조성을 통한 고용창출, 기술이전 및 생산성향상의 파급효과를 만들어 내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라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런 효과를 실제 성공 사례로 증명한 홍콩, 싱가포르의 우

리에게 아주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이라 할 것이다.

II. 현황과 과제

세계에서 가장 국제화된 곳을 꼽으라고 하면 주저없이 싱가포르와 홍콩을 말한다.

아직은 우리가 이들 두 지역과 비교하기에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제주가 지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들 지역에 비해 뛰어난 청정 환경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고품격의 국제도시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제자유도시란 말 그대로 제도의 간섭이나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도시다.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이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복합기능도시를 말한다.

특히 우리가 추구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쾌적한 자연환경이 유지되고 품격 높은 교육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며,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모두가 질서를 지키면서 행복한 삶이 영위되는 도시다.

이러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JDC는 6가지 대형 핵심프로젝트와 생태공원 등의 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6대 핵심프로젝트는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형주거단지, 서귀포미항사업 등이다.

이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과 실천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아직 개발사업의 초기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주의 외자 유치실적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그 원인으로서는 동아시아 주요지역에 비해 정주환경, 조세 및 규제완화 정도, 시장성, 우수인력 등에 있어 경쟁력이 취약하고, 국내의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지역특구 등에 비해서도 비교 우위의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제주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시드머니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 즉 제주특별자치도와 JDC가 추진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 마련을 위한, 단기적 수입보다는 장기적이고 대규모의 투자 유치 사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개방 개혁 이후 급속도의 경제발전을 통한 중국의 부상은 아시아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중산층 이상의 중국인들을 타깃으로 하는 관광지로서의 제주는 고작 경관위주에 그치고 있다.

최근 몇 년 급증하던 중국인 관광객이 올 들어서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새로운 관광밸류를 추가할 수 있는 핵심 아이콘, 랜드마크적인 복합 리조트 관광산업의 부재에 기인하는 것으로 당장 전략적으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를 말해주고 있다.

Ⅲ. 국제적 엔터테인먼트 시설 도입

그렇다면 중국인 등 세계인들을 유인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해야할 제주만의 차별화된 랜드마크적인 사업은 없는 것일까.

최근 거론되고 있는 ‘아이스 심포니 월드’ 프로젝트가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자유도시 수준에 맞는 신개념의 차별화된 관광인프라로써의 ‘아이스 심포니 월드’ 프로젝트 도입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체험 및 가족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획기적 테마관광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아이스 심포니 월드’가 가져다 줄 가장 큰 효과는 연 261만명에 달하는 국내의 신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3천3백여명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

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데 있다.

무엇보다 자연경관 위주의 제주 관광 패러다임을 융복합적인 엔터테인먼트, 특히 스포츠와 융합된 관광산업의 패러다임으로 관광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또 세계적인 빙상선수들이 참여하는 경빙을 통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또 세계 최초의 세계프로빙상연맹(가칭)과 같은 국제기구 설치를 통해 제주를 세계화하는 데도 용이하다.

아울러 ‘아이스 심포니 월드’는 단순한 경빙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엔터테인먼트로서 겨울철 관광과 야간관광, 그리고 악천후 관광 부재인 제주지역의 전천후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V. 세계 수준의 교육·의료 환경 조성

이러한 시설 외에도 제주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지역민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주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즉, 살기 편한 주거시설, 교통망, 교육제도, 의료시설 등 사회 기반시설 확충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정주 외국인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지역민들과의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인투자환경에 있어서 교육환경은 매우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며, 충분한 수의 국제학교와 경쟁력 있는 대학교육은 투자유치확대 및 고급인재 육성을 위한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 위급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할 때 내국인처럼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리조트형 헬스케어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싱가포르나 홍콩에 비해 전반적인 의료수준 면에서는 부족하지 않지만 보건 및 의료환경 인프라는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개선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 부분이다.

의료서비스 부문에서의 빠른 경쟁력 확보방안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편리성 및 선진의료 서비스 확대 측면 등을 고려하여 투자개방형 병원이 시급히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V. 글로벌마인드 함양

그러나 좋은 제도와 시설만으로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국제자유도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에 걸맞은 선진화되고 성숙한 도민의식이다.

JDC가 매년 국내외 유명인사를 초빙해 'JDC 글로벌 아카데미' 강좌를 열고 공을 들이는 이유도 우리 제주도민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키우고 열린 마음을 가진 국제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국제시민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열린 사고를 가져야 한다.

다양성의 인정은 자신이 가졌던 일방적인 잣대를 버리는데서 출발한다. 세계 240개국, 수많은 인종과 그들의 정치, 문화, 사회체제까지 포용하는 것이 다양성의 인정이다. 그리고 다양성의 인정이 바로 국제화이다.

VI. 마치면서

국제화란 외부로의 국제화와 내부로의 국제화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인 국제화는 내부로의 국제화, 즉 세계 각 국의 사람들이 찾아오고 투자유치가 이뤄지며 함께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주 내부의 지구촌을 말한다.

그러나 시장규모는 열악하고 조세제도, 경영환경, 정주환경 등 외자유치를 결정하는 대부분의 요인에서 싱가포르, 홍콩 등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특별자치도 만큼이라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다 과감한 개혁을 위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명품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로서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절대적인 만큼 과감한 추진력과 이를 수용하는 제주도민의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 건설은 제주의 미래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도 책임질 수 있다.

서두른다고 해서 당장 국제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차근차근 그리고 꾸준히 그러한 노력들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주 문화 예술의 국제화

--모든 세계 사람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문화예술 모형

현길언

1. 문제와 방법: 제주문화예술의 국제화를 논의해야 하는 이유

한 지역의 문화는 고유한 전통과 양식을 지니면서도 보편적인 세계성도 아울러 보유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류가 다양한 문화를 이뤄놓았지만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욕구와 그것을 실현하려는 본능적 심성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 공간성과 시간성의 극심한 변화 앞에서 지역 문화의 독자성이 무너지고 있으며, 설사 이데올로기와 현실적 여건에 의하여 그 독자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역문화의 특수성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 안에는 감각적이고 효용적이며 정치적성을 뛰어넘는, 어디에서도 쉽게 얻을 수 없는 인간의 진실이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희귀함에 대한 유다른 취미처럼 유행이나 경박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렸던 인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동경(銅鏡^{동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주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산천이 변하고 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변하였고, 그들 생각도 변하였고, 제주를 찾는 사람들도 변하였고, 그들의 취향도 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화의 속도는 빨라질 것이고, 그래서 정책 입안자들이나 현실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제주사람들도 그 변화에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주 자연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제주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과 문화주체가 만들어내는 문화와 예술도 그 같은 변한다 하더라도 그 내면에는 변하지 않는 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것은 제주적인 것이면서, 역설적으로는 모든 세계사람들이 지향하는 문화의 요체입니다.

왜냐면 세계사람들도 엄청난 문화충격에 의하여 자기의 고유한 옷을 벗어버리고 세계인의 복장과 음식을 즐기지만 어느 때에 무의식적으로 인간의 원초적인 문화욕구를 갈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동기에 제주문화예술의 특수성을 세계화함으로 그 의미를 확산할 수 있을까? 최근 몇 년 동안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평화의 섬’으로, 인류의 꿈이 실현되는 공간으로 변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수적인 것은 그러한 ‘자유도시’와 ‘평화의 섬’은 어느 시대 어느 민족과 국가도 지향했던 이데올로기나 가치를 수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의 문화 예술은 모든 세계인이 지향하는 문화 예술적 욕구와 호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 욕구는 자유와 평화를 향한 인간의 노력과 꿈의 결정으로 ‘자유도시’와 ‘평화의 섬’의 지향하는 바와 일치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 문화 예술은 궁극적으로 자유와 평화의 문화와 예술이 되어야 합니다.

2. 국제자유도시와 평화의 섬의 문화와 예술

제주에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로서 ‘평화의 섬’은 이 두 공간 개념을 포함할 수 있는 자유와 평화의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도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주체인 사람이 만들어가는 문화이고 예술입니다.

‘국제자유도시’와 ‘평화의 섬’은 공간성과 주체인 사람과 문화로부터 구체화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주 사람들이 국제 자유도시인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그것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과 그 삶은 검증이 용이하지 않는데, 문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들의 문화예술은 인간의 보편적 욕구인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는 꿈과 그것이 실현되는 모형이어야 세계 사람들로 부터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화의 토대가 되는 자유와 평화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문화예술로 구체화할 수 있는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1) 문화예술 정신으로 자유와 평화

문화론적인 차원에서 ‘자유’는 문화 주체자의 정신을 의미하는데 질서와 조화의 산물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개인과 전체가 자유로워지려면 개별적 존재들끼리 정상적인 관계를 이뤄 내야 하는데, 그것은 통제가 아닌 그 각 주체들 스스로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데서 가능합니다. 그것들끼리 만들어내는 질서는 아름다운 것이 되고,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려면 계속하여 새로운 질서에 의하여 조화로운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그 개체들은 자유로울 수 있고, 서로의 관계도 조화로운 질서 안에서 충돌을 빚지 않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화의 미학의 가능하고, 이것이 문화화될 때에 그 안에 살아가는 개체들도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고답적인 미학의 원리로 남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문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제주 문화예술은 세계성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와 평화의 미학은 제주문화예술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2) 제주문화예술의 특성과 자유와 평화

제주문화는 제주의 환경과 역사와 전통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문화는 이데올로기나 의도적인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삶과 정신의 자연스러운 결정체입니다. 이제 전통적인 제주문화예술의 특성을 통해 인류가 지향하는 문화 예술적 욕구와의 관계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변성입니다. 제주는 공간적으로 주변지역입니다. 섬이라는 지리적인 여건이 그렇고, 정치적 행정적으로도 서울이나 중심부에서 떨어진 변방이었습니다. 제주인의 구성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중심부 세력에서 밀려나온 주변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문화의 바탕에는 주변부 의식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¹⁾

그런데 이 주변부 의식은 제주사람들의 생존양식의 정직한 투영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이것은 항상 중심부에 대해 긴장을 유지하기 때문에 문화와 예술의 동력이 됩니다. 제주 설화와 민요와 무

(1)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쓴 <제주문화론> (탐라목석원, 2001. 7) “제주문화의 기저와 성격”에서 논의함

속본풀이 등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풍부한 구비 전승을 보유했다는 것은 이러한 주변부 의식 때문입니다.

주변부 의식은 지리적 공간적 의미만을 지니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열망을 동반하기 때문에 문화와 예술 창작의 동력이 됩니다. 세계의 문화는 두 개의 힘에 의하여 창조되고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나는 ‘지금 여기’의 가치를 강화하려는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힘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극복하려는 주변적인 욕구입니다. 이 둘이 쉬지 않고 긴장을 유지하면서 중심부 문화에 대한 비판과 저항과 극복의 논리를 마련하면서 지탱해 왔습니다. 이것은 양자의 입장에 도전이 되기도 하고 자기 갱생의 노력으로 이어지기도 해서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만드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주변성은 문화와 예술의 창작의 큰 동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인류의 보편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주의 주변성은 제주의 독자적인 것이면서, 세계성을 지니게 됩니다.

둘째는 다양성과 조화입니다.

제주의 문화예술은 제주의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작의 주체들인 사람들의 삶과 그 의식을 지배하고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제주의 중심 환경은 바다와 산입니다. 태평양의 너른 바다와 높은 한라산이 서로 바라보고 서로 만지면서 앉고 누워 있습니다. 이들은 이질적이면서 함께 있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이들을 양 겨드랑이에 끼고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환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의 의식에는 이 이질적인 두 요소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으나, 제주는 이 둘을 잘 조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문화와 예술에는 이 두 요소가 적절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주문화예술은 이 이질적인 것의 조화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양성과 조화의 양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 날과 심술부리는 날씨, 토박이와 도래인으로 구성된 제주사람들, 바다의 남방문화와 대륙의 북방 문화가, 해양 문화와 농경문화가, 수렵문화와 농경문화가, 돌과 나무의 문화 등등이 여러 부문에서 이질적인 것이 아름다운 조화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화와 질서의 예술정신, 다양성을 추구하는 창조정신, 평화와 자유를 추구하는 화해정신과 호응됩니다. 이러한 표현은 혹 이데올로기적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조화와 질서, 다양성, 평화와 자유정신의 화해는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영원한 예술 정신의 중핵입니다.

오름의 그 외향적 곡선의 무심과 심오함, 민요의 강인한 생활성과 애잔한 서정성, 설화의 저항과 타협의 이중적 요소, 무속본풀이의 신화성과 현실성 등등, 초가 벽의 돌과 지붕의 띠가 주는 둔탁함과 안정감, 기교가 없는 목기구들의 질박한 실용성, 갈옷의 실용성과 미감 등등은 이질적인 것이 조화를 이룬 예일 것입니다. 더구나 제주 사람들의 성향 중에서도 이러한 면이 두드러집니다. 실리와 명분의 이중성, 타협과 비판의 모호한 태도와 그 지혜, 조상 숭배와 분가의 관습, 여자의 역할과 남자의 위치, 꿈과 현실 지향성, 중심부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 등등입니다. 이러한 다양성과 이질성의 조화의 실상은 매우 풍부합니다.

제주 문화예술의 주변부성의 적극적인 저항과 창조의 정신과 다양함 속에서 어떤 질서와 조화를 지향하는 정신이 결합하면 풍부한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토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세계인이 사랑하는 제주문화예술을 위하여

새로운 제주문화예술을 위해서는 창작 주체자의 몫과 그가 살고 있는 제주의 문화예술 풍토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시대에 제주문화예술은 독자성을 바탕으로 세계성을 포함하는 새 양식을 창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삶의 치열성이 유지되어왔습니다. 이 치열성은 진지한 문화를 이룩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환경은 개선되고, 삶의 형식적인 면에서 고통과 억압이 해소되면서 문화 예술에 대한 열망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사회상황과 개인의 삶의 양식이 변화에 따라서 문화 예술의 환경도 취약하게 될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창작 주체의 입장에서는 진지하게 방법과 양식을 모색하고 의도적으로 새로운 문화예술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이데올로기가 사회를 지배하는 시대에 내면으로 비문화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짜 문화가 행세를 함으로 문화의 억압시대가 될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제주 문화예술의 특성의 근간이 되었던 ‘이질적인 것이 조화’와 ‘주변부성에 의한 새로운 창조정신’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질적인 것의 조화는 세계 문화 예술의 중심 정신이 될 것입니다. 세계는 공간과 시간 관념이 무너지고 이데올로기가 취약함에 따라 모두가 세계인이 되면서 세계문화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미국문화, 한국문화, 서울문화 제주문화의 구별이 극히 모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이질성과 다층성을 근거로 한 새로운 양식의 창출입니다.

(1) 제주적이면서 세계적인 것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제주적이면서 미국 것, 섬의 것이면서 대륙사람이 좋아할 문화예술작품은 무엇일까? 그 논리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제주를 찾는 미국 사람들이 투숙하는 호텔 정원이나 공항 정원은 어떻게 꾸며야 외국 사람들이 즐겨 볼 것인가. 꽃을 좋아하는 미국 관광객이라도 제주에 오면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이 아닌 제주의 꽃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꽃은 제주의 꽃이면서 미국사람의 꽃이 됩니다. 꽃에는 모든 세계 사람이 좋아할 만한 꽃의 본성으로서 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주의 들꽃에는 미국에 있는 화려한 꽃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고, 그것은 미국사람이 좋아하는 꽃의 속성과 상통합니다. 그런데, 미국사람이 많이 투숙하는 호텔의 앞뜰에 미국식 잔디를 심고 미국 꽃으로 꽃밭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미국사람들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겠습니다. 차라리 그곳에 제주 잡초나 들꽃밭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놓았다면, 아마 미국사람들의 인상에 오래오래 제주와 그 호텔이 인상에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미국사람의 취향에 맞는 정원과 꽃밭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논리는 앞으로 제주가 지향해야 할 문화와 예술 양식과 방법의 단서를 제공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2) 치열하게 세계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문화예술 현상을 공부해야 합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문화욕구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모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현상을 볼 때에 미국 관광객을 위해 미국잔디로 정원을 꾸미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제주적이면서 세계적인 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면서, 아직껏 제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개인적인 창작 욕구에 의해 개인의 창작에서 가능한 것이며, 문화의 경우에는 제주사람들이 독자적인 문화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에만 가능한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제주의 문화예술은 과거 제주의 것의 답습이 아닌, 지금까지 제주에 없었던 것을 창조해야 합니다.

(3) 소재주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주의 민요, 역사, 설화, 돌과 목기, 오름과 바다와 한라산, 무속본풀이와 굿과 민속놀이 등을 소재로 하여 예술작품을 창작할 때, 우리는 아름답고 고귀한 그 제주의 소재에 짓눌려 대상을 객관화할 수 있는 여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비판적으로 인식하여 해체하고 취사선택하여 재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소재주의 한계에 머물 것입니다. 그러한 수준으로는 세계사람의 좋아할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4) 자기 것에 대한 지나친 애정이나 편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곡된 애정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폐쇄된 자아의 투영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안이하게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창작은 기존의 상황이나 가치에 대한 전복적(顛覆的)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더구나 자기 것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그 한 예로 제주적인 것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인식은 경계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섯째는 새로운 양식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쉬지 않고 자기와 세계에 대한 정직한 인식과 싸움을 통해서 자기 것을 부정함으로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 문화예술의 창작

풍토가 정직하고 진지해야 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자기로부터 탈출하려는 욕구에 갖도록 도와주고 충고해 주는 풍토가 필요합니다.

(5)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과 예술을 창작하는 사람의 문제

아마추어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은 예술을 창작하는 사람의 몫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구분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분이 불분명하면 예술 창작의 분위기를 흐려놓아서 그래도 취약한 지역 문화예술계의 성장이 정체됩니다. 프로는 철저한 프로 정신에서 피눈물 나는 자기 극기와 노력을 통하여 예술 창작에 정진해야 하고, 아마추어는 예술을 사랑하고 향유하는 즐거움을 통하여 지역에 건전하고 밝은 문화예술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양자가 결합함으로써 지방 문화예술계는 중심부 도시보다 큰 도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날 한국 예술계의 문제는 너무나 예술가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구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프로의 근성도 자리잡을 수 없으며 대접도 받지 못하고, 아마추어의 순수성도 찾아볼 수 없는 예술의 사각지대가 되었습니다.

(6)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후원의 효율화 문제가 있습니다.

창작 지원금의 효과적인 운영입니다. 물론 현재의 제도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작품다운 작품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자금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돈을 받았으니까 뭔가 해야 한다는 식은 예술 창작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원금을 받은 기회에. 한 권의 창작집이나 전시회나 공연 기회를 갖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준으로는 작품다운 작품이 생산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제도와 더불어서, 다른 방법, 예를 들면 문학의 경우에, 작품집을 보고 그 문학성이 뛰어난 경우에는 일정 분량의 책을 구입 학교와 지역사회 도서관에 배포하는 방안, 전시회의 경우 좋은 전시회 작품을 구입해서 공공 기관에 전시하는 경우, 공연예술인 경우에는 일정액의

입장권을 사서 공연 관람을 해주는 제도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지원금을 받아 간행된 책이나 공연이나 전시회가 독자도 없고, 작품도 안 팔리고, 관람자도 별로 많지 않다면, 창작의 결과가 제대로 향유자에게 돌아가지 않음으로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이나 이해도는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성 있는 예술가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술인 지원 펀드를 운영해서 예술 창작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방안 같은 것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단합입니다. 예술 창작 풍토가 취약한 좁은 지역에서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사적 감정을 배제한 진정한 토론 문화를 통하여 스스로 성장하면서 이웃도 성장하도록 도와준다면, 타인의 열정이 나의 열정으로 되돌아오면서 예술 창작의 풍토가 밝아질 것이고, 그것은 자라는 후세들에게 큰 교육적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운영의 묘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문화예술 포럼을 운영하여 창작 주체와 향유자의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창작 주체는 자기 예술에 성찰과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기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7) 제주의 문화 예술을 세계에 알리는 일입니다.

제주처럼 좁은 지역에서 풍부한 구비문학 유산을 갖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민요나 제주를 대표하는 설화를 정선하여 관광객들에게 제주 문학의 실체를 알리고, 외국어로 번역하여 국제적으로 제주의 문학을 알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대 문학 작품들도 국내외적으로 손색의 없는 작품들을 엄선하여 해외에 소개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문학만이 아니라, 미술이나 공연 예술 분야는 교환 공연이나 전시회를 갖는 일도 중요합니다. 경비 문제는 문화예술을 위한 자금을 유효하게 쓰면 가능하며, 앞에서 제시한 펀드 운영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또는 개인의 좋은 문학 작품 번역 소개, 전시작품이나 공연 작품이 국외 전시 공연도 가능할 것입니다.

4. 경계해야 할 문제들==결론을 대신하여

문화예술은 국경과 문화 그룹을 뛰어넘어 인류 공유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좋은 작품일수록 평화와 자유를 지향하면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사람 누구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제주가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이 된다는 의미는 세계인이 즐기고 좋아하는 문화예술의 고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와는 다른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기에 그들이 할 수 없었던 인류성과 세계성을 공유하는 문화 예술의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민이 이에 대한 자긍과 의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경계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1) 제주의 문화와 예술을 이념적으로 인식하고 과대 포장하는 일입니다.

문화는 자랑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그 문화예술 현상이 그 주체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의식을 얼마나 치열하게 드러내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그러한 문화와 예술 현상을 사랑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 참 의미를 찾게 될 때에 그것을 널리 나누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대 포장하여 그 의미를 강화하게 되면 그 실상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최근에 들어와 제주의 문화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그 문화의 실체를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 바탕에는 상업성과 정치성이 교묘하게 어울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속에 대한 지나친 의미부여가 그 하나입니다. 무속은 제주문화의 한 현상일 뿐이지, 그것이 제주문화를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굿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굿에 대한 제주사람들의 관심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관심으로 끝나야 합니다. 굿이 관심을 끈 것은 민주화시대의 민중문화의 가치를 제고하는 사회적 상황에서입니다. 억압받은 사람들의 문화욕구,

하층계층의 문화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는 문화 환경에서 굿이 제주문화의 중심인 것처럼 왜곡되어 왔습니다.

사실 마을마다 성황당이 있지만 그것을 신앙하는 것은 마을 사람들 중에 극히 일부 주로 여인들입니다. 집안에서 굿을 하는 경우도 특별합니다. 더구나 남자는 무속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의 신앙양식입니다. 육지에도 마을 성황당이 있습니다. 성황당이 아니더라도 마을 사람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주 성황당이 육지부와 다른 점은 그 성황당 마을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성황당의 당신에 대한 내력담이 질서정연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제주 사람들의 문학적 상상력의 문제입니다. 그 불쌍한 하급 신의 내력을 통해서 제주사람들의 삶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풀이는 신앙담이 아니라, 백성의 이야기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의 제의식도 유교식인 포제와 그 마을의 생업에 따른 다양한 마을 신앙제의가 있습니다. 하나 특이한 사항은 제주에서 이 무속신에 대한 신앙과 유교식 조상제의가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제사와 명절 제사 때에 문전제가 그 예입니다. 그렇다고 무속이 제주 문화와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상품화와 상업주의와 결탁

제주에는 관광상품으로 문화 예술이 전락해서는 안됩니다. 제주의 자산인 구비전승을 어떻게 현대적인 문화컨텐츠로 개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주를 “**만 신이 사는 땅”이라는 허황된 구호를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무속신앙이 다른 지역에 비해 성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섬의 일반적인 문화현상입니다. 제주에 신이 많은 것이 아니라, 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신이 많다는 것보다는 ‘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는 것이 훨씬 품위도 있고, 또한 그것이 사실입니다.

또 다른 현상은 관광자원화한다는 미명아래 문화현상을 왜곡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는 설화를 만들어내고, 그 설화 해석을 엉뚱하게 하기도 하고, 눈을 즐기는 b 새로운 조형물을 만들어 제주 문화의 실상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문화예술 작품으로 새로운 조형물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전래해 오는 것처럼 인식하여서는 안됩니다. 방사탑을 쌓는 일, 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형물들을 조잡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제주의 전통문화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해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3) 문화의 정직성을 훼손하는 일

목적적 행위는 문화를 왜곡시킵니다. 이념적으로 문화와 예술 현상을 이해하거나 선전하려고 할 때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품위있는 참 문화를 훼손시키는 문화의 적입니다. 문화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에 대한 진정성은 모든 세계 사람들의 문화예술 의식과 상통하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제주문화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